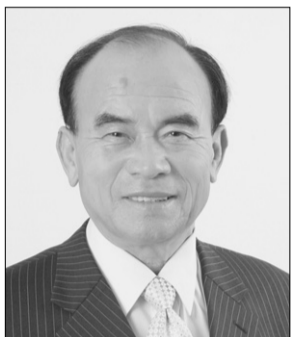


고성신문 창간축하메시지

황종국 고성군수



우리 고성지역에 뿌리를 둔 '고성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창간이 있기까지 노력하여 주신 윤승근 고성신문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우리지역은 금강산육로

“문화수준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될 것”

관광 중단 장기화와 어획고 부진 등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행복한 고성만들기, 행정과 주민의 가교, 등잔 밑을 밝

히는 신문』이라는 창간이념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고성신문이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갈 매우 소중한 언론매체로서의 역할은 물론, 다양한 지역 소식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문화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합니다. 다시 한번 '고성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지역을 대변하는 구심체로서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높이고 미래발전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심어주어 사랑과 신뢰속에 더욱 큰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조리 감시·경제활성화 기여”

문명호 고성군의회 의장

희망찬 신묘년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신문인 고성신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고성신문 창간에 애쓰신 윤승근 고성신문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차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일수록 지역 언론이 발전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역일간지는 70여개에 달하고 주간지까지 합하면 수백 개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신문이 비록 아직 든든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못하였지만 지역주민



들의 입장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지역 언론이 확산되어 왔고, 중앙이나 지방일간지에 비해 훨씬 더 주민들의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밀접한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첨단화,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간이 우선적으로 찾는 뉴스는 세계에 관한 뉴스가 아니라 지역과 그 주변에서 일어난 뉴스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고성신문 창간은 지역주민 상호간 정보와 의견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의 개혁과 발전을 앞당기고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지역 민주화를 발전시킬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 고성신문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어, 지역사회의 성원을 받는 지역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희망의 메시지 담아 전해주길”

임승환 고성교육장

산·호수·바다 내음이 가득하여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 지역에 언론의 불모지인 고성지역의 염원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간준비에 애써 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고성신문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과 어획량 감소, 구제역 발생 등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고성군이 몇 단계 더 도



약할 수 있도록 고성군민이 진리를 밝은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대변해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교육이 사랑·나눔·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전해주시고, 아울러 군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소통을 함께 나누는 고성신문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민관군 모두 인화단결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여줌으로써 하나되는 통일 고성의 초석을 마련하여 주시고, 마음 따뜻한 소식들로 충만하여 영북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를 대변하는 고성신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성신문의 창간을 축하드리며, 고성신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창조적 대안 찾는 중심 역할해야”

황연인 고성문화원장

지혜와 풍요의 상징 토끼의 해인 신묘년 정월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는 고성신문의 창간에 문화원 가족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의제를 선정하고 이끄는 데 언론만큼 영향력 있는 주체가 없다고 봅니다. 언론이 우리 사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공정하고 책임있게 제시하고 우리군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 할 때 우리 고성의 미래 과제들도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군은 지금 활기차고 살기 좋은 미래의 고성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조업, 관광·레저산업 분야의 민간자본 투자유치,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 해양심층수 개발 등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문화, 환경, 주거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고성군과 민간단체 등 각계 각층이 머리를 짜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는 지역 스스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언론, 주민사회가 함께 비전과 전략을 내 놓고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창조적 대안을 찾아내고 협력관계를 만들어 내야 하며 그 중심적인 역할을 지방언론이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성신문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큼니다. 생생한 지역 밀착형 이웃 소식을 전달하는 물론 공정한 공론의 장 역할로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여 풀뿌리 언론으로서의 큰 역할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창간에 애쓰신 윤승근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고성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건강하고 성숙된 사회만들기 노력”

이용완 고성경찰서장

안녕하십니까, 고성경찰서장 총경 이용완입니다. 먼저 고성신문 창간을 고성경찰서 전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적 향상과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고성신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고성 만들기, 행정과 주민의 가교, 등잔 밑을 밝히는 신문'이라는 이념



아래 창간하는 고성신문은 우리 사회의 밝고 따뜻한 얘기를 담아내고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건강하고 성숙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요즘처럼 사회가 어수선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주민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언론으로써 책임과 소명의식을 갖고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통해 여론을 하나로 집결하여 새로운 고성군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고성신문의 창간을 축하드리며,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신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